



‘엘로더비’ 광주, 마지막 자존심 지킨다

광주가 동향라이벌 전남과의 ‘엘로더비’로 1년 농사를 마무리 한다.

광주FC는 1일 오후 2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남드래곤즈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2 44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27일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2’ 대구 FC와의 43라운드에서 0-2로 패하며 최종전 경기 결과에 관계 없이 다음 시즌 강등이 확정됐다. 42라운드까지 승점 42점으로 강등권이었던 광주는 대구와의 경기에서 전반 26분만에 인준연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전반을 0-1로 뒤진 채 마쳤고 후반 16분 최호정에게 또 한 골을 허용해 결국 0-2로 패했다. 무조건 승리해야만 잔류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간절함이 오히려 독이됐다.

하지만 마지막 경기가 남아있다. 상대는 지역 라이벌인 전남과의 ‘엘로더비’다 광주로서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질수 없는 경기다.

광주는 1년간 씬 없이 달려왔다. 시즌 시작과 함께 5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K리그 정상의 자리에 섰고, 수비조직력이 무너지며 12경기 무승으로 바닥을 찍기도 했다.

이미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지만 그동안 믿고 지지해준 팬들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광주는 지난 6월 홈 맞대결에서 전남을 6-0으로 대파한 달콤한 기억이 있다. 광주는 김동섭과 박민, 김은선의 릴레이 골을 앞세워 전반에만 5골을 넣었다. 전반전 5골은 K리그 30년 역사를 통틀어선 네 번째. 광주는 후반전에 나온 주앙파울로의 골을 더해 양팀 최다 골 차 역대 2위 기록을 썼다.



GJFC Check CARD

광주시민을 위한 플러스 할인 혜택!

광주은행 Nice Check CARD와 광주FC 패밀리카드가 하나로!
광주시민과 광주FC 팬을 위해 탄생한 GJFC Check CARD는
두 카드의 혜택이 플러스 되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사용가능고객
만 14세 이상 당행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고객
- 이용한도
1일 이용한도 5백만원, 월간이용한도 2천만원

GWANGJU FC SPONSOR

KJB 광주은행	SHINSEGAE	금호리조트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병원	청연항방병원	우미건설	동송골드스파&리조트 Jungshung Gold spa&resort
LH	목동21병원	Bullson	21세기병원
광주광역시청	해양도시가스	저리산산삼	Coca-Cola
최모수 휘트니스 클럽	한페이카드	Seven Springs	CAPO
VIPS	WATERVIS (주)워터비스	뮤엄영어	금호제일리조트
1600-7777	중흥S-클래스	명인재역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GWANGJU
FOOTBALL CLUB

@EUNSSUNG

2012 No.13



GWANGJU F.C Matchday Program

NEXT HOME MATCH



광주 VS 전남

12월 01일 (토) 14시00분



2012 K리그 그룹B 순위

순위	구단명	경기수	승점	승	무	패
9	인천	42	64	16	16	10
10	대구	42	58	15	13	14
11	전남	42	50	12	14	16
12	성남	42	49	13	10	19
13	대전	42	47	12	11	19
14	강원	42	43	12	7	23
15	광주	42	42	9	15	18
16	상주	42	27	7	6	29

2012 K리그 그룹B 최근 5경기 순위

구단명	▶▶▶▶▶					승점
전남	승	무	승	승	승	14
인천	승	무	승	무	무	12
강원	승	무	무	패	승	11
대구	패	승	무	승	무	11
광주	승	무	승	무	무	9
대전	패	무	패	승	무	5
성남	패	무	패	패	패	2

2012 K리그 광주FC 득점순위

순위	선수명	경기수	득점	경기당득점	유효슈팅
1	주앙파울로	38	8	0.21	1.211
2	김동섭	30	7	0.23	0.567
3	김은선	32	7	0.22	0.5
4	박기동	30	5	0.17	0.867
5	복이	35	5	0.14	0.629

2012 K리그 광주FC 도움순위

순위	선수명	경기수	도움	경기당도움	유효슈팅
1	이승기	38	12	0.32	0.632
2	주앙파울로	38	7	0.18	1.211
3	박기동	30	5	0.17	0.867
4	김수범	36	4	0.11	0.194
5	안동혁	27	2	0.07	0.222

광주FC 팬 여러분,

가을인가 싶더니 벌써 앙상한 나뭇가지들만 보이는 12월이 되었네요.
저희도 올 한해 어느때 보다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항상 결과에 상관없이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한결같이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강제가 첫 시행되는 올해는 저희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2012 마지막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극장에서 저희와 함께 주인공이 되어
2012시즌 멋지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광주FC 주장
김은선 No. 6



PREVIEW

오공축구의 부활 '광주를 깨워라'

올 시즌 광주의 발목을 잡았던 부상과 경고누적이 희망으로 돌아왔다.
빡빡한 일정도 도움이 됐다. K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광주의 오공축구가 부활했다.

3경기만에 부상에서 돌아온 김동섭은 대구전을 통해 감각을 끌어 올렸고, 복이는 경고누적으로 한경기를 쉬며 체력을 비축했다. 주앙파울로는 경기를 뒤흔들며 결정력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박기동, 이승기는 꾸준히 제몫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선수단의 의지도 남다르다.

캡틴 김은선은 "이미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지만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마음을 다잡고 있다"며 "전남전 승리로 올시즌 광주를 지켜준 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극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꿈꾸고 있는 광주의 최대 적은 바로 방심이다. 전남은 지난 경기 설욕전을 준비했지만 실패했다. 이미 1부리그 잔류가 확정된 상황이지만 옐로더비 승리의 깃발을 빼앗겠다는 목표가 있다. 광주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 옐로더비와 1부리그 잔류와 2부리그 강등을 결정하는 마지막 경기. 정신력이 배가된 광주가 전남을 상대로 1석2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남 6-0 대파,
승리의 주역들



2012년 한 해 동안 성원해 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FLASHBACK



전남은 지난 맞대결에 대한 설욕을, 광주는 향후 경기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한 경기였다.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2' 31라운드, 경기는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렸다. 하석주 감독 체제로 개편된 전남은 지난 날의 대패 (06/23 광주 6-0 전남)를 설욕코자 했다. 때문에 라인업에도 공격자원들을 대거 투입했다. 전방에 플라비오와 심동운이 나선 가운데 공격수 이종호와 이현승이 미드필더진에 배치됐다. 이기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다. 반면 광주는 전남이 익숙하지 않은, 평소와는 다른 선수진으로 전남의 허를 찔렀다. 김동섭과 박기동, 박희성이 선발 출전했다. 이승기가 공격조율의 키를 잡았다. 전남은 초반 분위기를 잡기위해 맹공을 퍼부었다. 광주는 점유율을 내주고 잔뜩 움츠리며 기회를 엿봤다. 경기가 생각처럼 풀어가지 못하던 전남은, 결국 전반 37분 패널티킥을 내주고 말았고 박희성이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선취골을 터트렸다. 정확하게 허를 찔른 셈이다. 전남은 후반 5분 신영준을 투입해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후반 18분 코너킥 상황에 이어진 혼전상황에서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광주도 지지 않았다. 숨겨뒀던 주앙 파울로와 복이 카드를 꺼내들며 전남에 저항했다. 전남은 설욕전에 실패하는 뼈아픈 경기로 기억됐지만 광주로서는 힘든 원정경기에서 승점 1점과 동시에 창단 후 전남전 정규리그 무패행진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익한 경기를 펼쳤다.

광주FC vs 전남드래곤즈 관전포인트

- 광주 지난 홈 전남전 6-0 대승
- 광주 최근 5경기 무패행진 (42R 기준)
- 광주 역대 전남전 2승 3무
- 광주 홈 승률 40.5%, 원정 승률 38.1%

광주FC vs 전남드래곤즈 역대상대전적

날짜	스코어	결과	장소
2011-06-18(토)	0:0	무	광주월드컵경기장
2011-10-16(일)	2:0	승	광양전용경기장
2012-04-15(일)	2:2	무	광양전용경기장
2012-06-23(토)	6:0	승	광주월드컵경기장
2012-09-15(토)	1:1	무	광양전용경기장